2023 TCBC Alumni

제 8 회 총동창회

"New Wave of Tanzania Mission"

EAMF 선교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 약속을 믿는 사람들 -

김은래 선교사, 1 강

East African Mission Fellowship

8/8/2023

2023 TCBC Alumni

제 8 회 총동창회, 제 2 일

EAMF 선교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약속을 믿는 사람들”

우리 동아프리카선교회(East African Mission Fellowship)는 지난해 2022 년 7 월 26 일, 26 년간의 탄자니아 선교를 돌아보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감사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며 탄자니아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고 많은 기록과 사진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사진을 보면서 창세기를 읽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각 사진의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먼지처럼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슬펐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었다는 생각에 머물렀을 때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멋진 역사적 순간의 사진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하도록 이 계획안에 부르셨을 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한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스크린샷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EAMF 선교회는 큰 선교회가 아닙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을 이루느라 많이 헌신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자니아를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와 우리 선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회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자니아와 그 백성을 사랑하는지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선교회는 26 년, 아니 28 년을 한결같이 기도하며

후원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많은 이방 백성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첫째, 탄자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앞선 계획, 둘째 별처럼 빛나는 사람, 셋째, 약속을 믿는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예레미야 10:23)"**

시편기자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좀 오해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 내가 내 걸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것에 응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의 탄자니아 미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탄자니아 선교지를 현지인에게 다 이양하고 떠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고, EAMF 의 탄자니아 선교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다시 놀랐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반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오묘하고 감사했습니다.

동창회 여러분 중에 혹시 박선교사 가정이 모든 것을 이양하고 떠났는데 왜 자꾸 탄자니아에 찾아오는지 의아했던 분이 있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로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양 받은 이들이

청지기로서 더 열심히 충성해서 선교사가 할 수 없었던 한계를 넘어 더 큰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탄자니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이 그 계획을 얼마나 싫어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EAMF 선교회의 탄자니아 선교에 대한 계획은 남편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많은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공부를 마치고 바로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한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모든 남자는 청년의 때에 일정기간 군복무를 다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식도 참석 못하고 소년의 얼굴로 군대에 입대한 남편은 훈련이 제일 힘든 제 1 공수(특수)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등을 맞아가며 운전을 배워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도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성가대로도 봉사했습니다. 같은 군부대 교회에서 함께 성가대로 봉사하던 장교 한 분이 남편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는 '하대용 중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군부대 지휘관인 장군의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군은 한국에서 꽤 유명한 장군입니다. 하중위는 장군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가까이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장군의 차를 이용하게 되었지요. 장군차를 운전하던 남편과 하중위는 더욱 가까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중위는 매일 새벽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고 같은 방을 사용하던 동료 장교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장교인 하중위와 사병이었던 남편은 서로 존경하는 신앙인으로 지내다 각자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남편은 제대 후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하중위와 몇 차례 더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하중위와는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몇 년 후 한국에서 대학의 교수가 된 하중위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 1 년동안 교환교수로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박운전병이 미국에서 목사님이 됐다는데 꼭 만났으면 좋겠다'하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도착했는데 어떤 한국분이 미국 생활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하면서 하교수에서 책을 한권 주었습니다. 그것은 '한인주소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인 가게 정보와 교회 전화번호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잘 되었다 생각하고 1 년 동안 다닐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보고 있는데 교회 목록 두번째에 '갈보리 교회, 박윤석 목사'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박 운전병!'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Hello!" 전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역시 장군의 차를 운전하던 박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밤 11 시에 둘은 즉시 만났고 지나간 군대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세우고 함께 새벽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교수의 가족은 남편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교수는 지금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미국에서의 1 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교수가 한국으로 떠나기 3 개월 전, 어느 날입니다. 남편의 교회에서 섬기던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교수는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척 예배 행사를 남편의 교회에서 다 준비해 주고 전교인이 도와주었는데 정작 담임목사인 남편에게 예배 순서에 아무 역할도 주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교수는 고마움을 모르는 새내기 목사의 개척예배에 가서 축하해 주기 싫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나를 봐서 가지시요" 하고 하교수를 설득했습니다. 하교수는 남편의 설득에 거절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기분이 내키지 않아 뒤쪽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누군가 기타를 들고 자신의 앞을 지나 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익숙한 실루엣이라 자꾸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 사람 군대에서 나와 같은 방을 쓰던 홍계호 대위아냐?! 미국에 이민 와서 동물병원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어울리지 않게 저 기타는 뭐지?'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그를 쫓아갔습니다. 아, 역시 그는 홍 대위였습니다. 홍 대위는 개척예배 행사에 초대받은 복음성가 가수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기타를 들고 들어온 것이지요. 이렇게 같은 공수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던 세 사람이 이국 만리, 미국 버지니아에서 역사적인 재회를 하였습니다.

홍대위와 하교수는 모두 교회의 젊은 장로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3 개월 동안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장로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홍장로는 남편의 교회와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교회에서 매일 새벽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교제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극적인 만남이 있은 지 3 년 후, 남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해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홍장로는 후원자없이 선교지로 떠나지 말고 적은 인원이더라도 후원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 가정이 미국에서 선교회를 발족하면서 탄자니아 사역의 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게 극적이었습니다.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홍계호 장로는 미국 EAMF 의 이사장으로, 한국으로 돌아간 하대용 장로는 한국 EAMF 의 이사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TCBC 동창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 군대에서 만남이 준비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놀랍지요? 흥미롭지요? 일반 병사와 장교의 관계는 목사와 성도, 그리고 선교사와 후원자의 관계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1995 년 1 월,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남편은 5 월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다고 교회에 선언하였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갑작스러운 발표에 모두

놀랐습니다. 선교지로 떠나기 위해 남편은 목회하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5 개월 동안 함께 공동목회를 하다가 시간이 되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기 전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한국에 들러 약 3 개월간 머물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한 달쯤 후 목회하던 미국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 미국 교회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직 아프리카로 간 게 아니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남편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픈 마음을 감추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시니 저는 아프리카로 가야 합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도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TCBC 동창회 여러분, 모두 목회자이니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사로 파송 받는 우리 동창들이 이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길 바랍니다.

1995 년 8 월, 남편은 가족과 함께 케냐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현지 언어인 스와힐리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케냐에 도착해서 얼마 후 미국 교회에서 또 다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 시스템을 너무 갑자기 바꾸고 있어서 성도들이 불편하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고 있고 내부 갈등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프리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더 고려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남편은 교회가 흩어지고 있다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영혼을 위해 지금 아프리카에 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이 목회하던 교회는 양들이 흩어지면서 결국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을 때, 박 선교사의 미국에서의 교회 사역이 실패한 것 같이 들리나요?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서로 다른 교회에 가서 선교부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이 탄자니아 선교를 후원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선교회가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알렸을 때 우리 두 아들들은 그 결정을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와 교회 생활이 무척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회는 어떡하고 아프리카에 가느냐? 르완다에 대학살 소식을 모르느냐?”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프리카 가기 싫다던 아이들이 미국을 떠나 케냐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했고 친구들도 잘 사귀었습니다. 남편은 한편으로 현지 언어를 공부하고 또 친구 선교사의 사역을 도우며 현지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친구 선교사가 한국 방문중이어서 그의 아내가 사역지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로비 근교 사역지에서 나이로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망했는데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찾는 일과 사고 처리, 장례를 모두 남편이 맡아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처음 사귄 친구의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고, 그 시신을 찾아 아빠가 나이로비 근교를 이리 저리 찾아 다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10 살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 부모도 사역을 하고 다니다 보면 길에서 사고를 당하고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1997 년 언어공부를 마치고 케냐를 떠나 사역지로 정한 탄자니아 탕가 (Tanga)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케냐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다녀야 했기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헤어지고 기숙 학교에 들어간 첫날 밤, 둘째 아이가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안전을 기대할 수 없는 낯선 땅에서 친구 엄마의 죽음을 경험한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그 첫 날밤, 10 살 아이의 눈물은 부모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이곳 TCBC 탕가 사역지에 와서 지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Samuel 이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이상 증세가 관찰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스스로 그것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케냐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보였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토렛신드롬 (Tourette Syndrome 또는 Tic disorder)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친구가 교통 사고로 엄마를 잃으면서 자신도 선교지에서 부모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박선교사는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 선교회에 먼저 알렸습니다. 선교회에서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이가 좋아지면 다시 선교지로 가는 것이 어떤 가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기도하고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탄자니아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고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맙게도 학교는 아이를 잘 돌봐 주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아프리카를 떠난 우리 아이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자신들의 삶에 아프리카를 선물로 준 부모에게 감사편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를 따라 아이들도 헌신했던 순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보다 사탄이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사탄도 이렇게 열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에 집중하면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박선교사가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가 흩어지고 사라질 때 마음이 아파서 미국으로 돌아갔다면 EAMF 탄자니아 선교는 시작되지 못 했을 것입니다. Samuel, 둘째 아이의 토렛신드롬 때문에 절망해서 미국으로 돌아갔다면 탕가신학교는 설립되지 못 했을 것입니다. 물론, 탕가신학교는 탄자니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설립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걸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2007 년, 저는 한국에서 고등 학교 입시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3 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20 년간 성가대 지휘자로 섬겼습니다. 저는 많은 강의와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며 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목이 아파서 성대 수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대는 약한 편입니다. 결국 저는 목소리를 잃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한국을 떠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셨던 제 모교회의 목사님이 저의 결정을 반대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ODA (공적개발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부에는 ODA 사업을 통해 젊은이들을 개발도상국에 보내는 외교부 산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2008 년 지원하여 다양한 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했고 한달동안 훈련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저의 결정을 반대하면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합격 소식을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이 넓은 세상을 보고 돌아오라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교회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2009 년 4 월 한국을 떠났습니다.

2007 년 미국 EAMF 는 탄자니아에 중등학교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8 년부터 무헤자 (Muheza)군에 학교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정부의 ODA 프로그램에 처음 지원한 것은 2007 년입니다. 저는 첫 지원에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 저는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해 한국 ODA 지원국 리스트에 탄자니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원국은 태국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나라로 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 지원에서 떨어지고 난 후, 두 번째 지원을 할 생각은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08 년, 저는 희망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희망을 적어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제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노트 맨 첫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GOD has blessed me to **be a blessing to others!**" 희망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저는 무언가 저를 강하게 이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 정부의 ODA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때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탄자니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있는 줄도 몰랐던 탕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휴식을 위해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TCBC 동창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걸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갑니까? 제 희망 노트에 씌어 있던 글은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 (LSBS)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Be A Blessing to Others!"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이 사람의 계획입니까? LSBS 동창들은 이 학교의 모토가 주는 울림 때문에 나쁜 길로 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토 때문에 자신들이 바르게 살아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이것이 리빙 스톤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남에게 복이 되려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졸업생들은 남들과 다른 강한 가족적 유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LSBS 동창들이 장차 미래에 New Wave Mission 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LSBS 의 개교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개교 전인 2011 년, 박윤석 선교사는 모시(Moshi) 라는 지역 (탕가 사역지에서 400km 거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탕가로 돌아오던 중, 사메(Same) 지역 근처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3 바퀴 정도 굴렀고 4 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현지 NGO 차량이 그를 아루샤 지역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의식이 깨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케냐에서 응급 조치를 하고 한국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큰 사고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리빙 스톤 학교를 개교하교 사역을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고 후 남편은 시편 118 편 17 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전하리라”.

2.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제가 이야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탄자니아 사역을 이양하고 떠날 때 TCBC 신학생들과 LSBS 학생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 다섯 살쯤 된 어린 소년이 땅거미가 지는 저녁,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 "얘야, 왜 그렇게 울고 있니?"
>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요. 엄마의 손길을 느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 그리고 아이는 또 울었지요.
> 천사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 "얘야, 저기 하늘을 보렴. 뭐가 보이니?"
> "저 멀리 별이 반짝여요."
> "그래, 반짝이는 별은 너무 멀어 만질 수 없지.
> 사랑하는 아이야, 눈을 감아보렴."
> 아이는 눈을 감았어요.
> "아직 별이 보이니?"
> "네, 보여요"

"그 별이 너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이야. 엄마는 네 마음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란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아이는 평화를 찾았어요.

다니엘 12 장 3 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했습니다.

좋은 추억은 우리 마음에 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멀어서 오늘 우리가 그 손을 잡아 볼 수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눈을 감아도 반짝거리는 그 별처럼 세월이 지나도 마음에 미소를 주는 반짝거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목회자의 돕는 베필로, 두 아들의 엄마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자니아의 선교사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고 떠난 고 에스더 박, 마마 박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은 1 분 1 초라도 귀중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치료를 거부하고 탄자니아로 돌아왔던 그녀의 결단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숨지는 순간까지 TCBC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탄자니아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돌아가신 엄마의 목소리가 잊힐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마 에스더 박의 무덤이 여기 TCBC 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서 있는 우리들의 목소리, 선교사 Andrew Park 의 목소리를 항상 듣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마 에스더 (고 김경순 선교사)의 무덤에서 나오는 소리는 항상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이것은 영광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우리의 말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둘째, 세상 끝날까지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무덤을 통해 이곳 TCBC Family 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녀가 한 알의 밀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New Wave Mission 이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페트로라는 어부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촌의 여러 사람들이 배를 몰고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페트로도 아들과 함께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 어촌에는 고기 잡는 일 외에 다른 직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를 나간 배들이 돌아와야 할 시간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온 동네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남편 혹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파도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설성가상으로 어느 집에서 어린 아이가 집을 보다가 촛불을 넘어뜨려 불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합심하여 이 불을 끄느라고 남편, 아버지를 기다리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동원해 정신없이 몇 시간을 싸우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배가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풍랑을 이기며 돌아온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 왔고, 어제 밤의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불 끄는데 누가 가장 애를 썼고, 풍랑은 또 어떠했느냐, 얼마나 서로가 힘이 들었느냐 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페트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웬 불인지는 몰랐으며 어쨌든 불이 보여서 그 불을 바라보고 결국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배는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집이

불타는 일이 있어야만 어부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미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집에 불이 나야 했는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지, 왜 내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해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3. 약속을 믿는 믿음

이제 끝으로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되도록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키우며 아브라함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재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TCBC 동문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칼을 대려는 순간까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멋진 말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노예로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창 50:20).” 요셉은 이런 멋진 말을 두 번 더 했습니다.

저는 이런 멋진 말을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나 경건한 목회자,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선한 말은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임을.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형들의 볏단이 자신의 볏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부모와 형들에게 말했을 때, 그는 너무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열한 별,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자랑할 때에도 그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에게 화가 난 형들이 그를 구덩이 던져 넣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구덩이에서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형들에게 구걸할 때도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그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갈 때도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의 꿈과 비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남편에게서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언제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요셉처럼 선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향해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하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받아도 남을 모함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원망,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탄자니아를 떠나던 해 (2021 년) 이전, 우리는 떠나는 것을 이미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몇 가지 싸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탄자니아 정부의 외국인 정책을 하나님의 싸인으로 보았습니다. 2015/16 년부터 마구풀리 정부는 외국인이 탄자니아에 거주하는 것을 5 년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 년까지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탄자니아를 떠났습니다. 두번째 싸인은 우리 선교회 후원의 약화였습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선교회 후원이 약화될 때 선교사는 그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싸인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떠날 때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에 순복하기로 했습니다.

2021 년 사미아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풀리자 사람들은 우리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우리는 선교지 이양이 우리가 한 선교사역 중에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면 사람들이 그 하던 일을 평가해줍니다. 여러분 모두 목회자인데, 그런 멈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동창 여러분, 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지혜로운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현지인들에게 위임하고 멈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양에 대해 감동했습니다. 신기하지요? 가던 길을 멈추었는데 박수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우리 동아프리카선교회(EAMF)도 이런 결정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교지 이양이 모범사례가 되었다고 격려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멈추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New Wave of Tanzania Mission”입니다. 선교지를 이양하고 가던 길을 멈추는 일이 없었다면 새로운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위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일의 위임은 신뢰에서 시작되는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멈춤과 나아감을 분별하고 순종합니다. 다윗 왕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새 노래, 새 프로젝트, 뉴 웨이브 선교 운동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저는 EAMF 탄자니아 선교 역사를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걸음(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과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TCBC 동창회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의 밀알이 되어 세계 선교를 위한 New Wave 부흥을 일으키는 근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부족한 저의 스와힐리어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축복을 빕니다.